

활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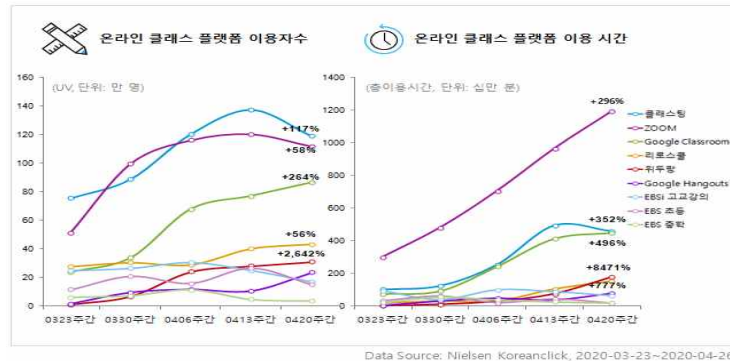
추진배경

- (사회변화)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교육 일상화
- (정부정책)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·비대면 활동 활성화 추진
- (Needs)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점에 비대면 활동 콘텐츠 제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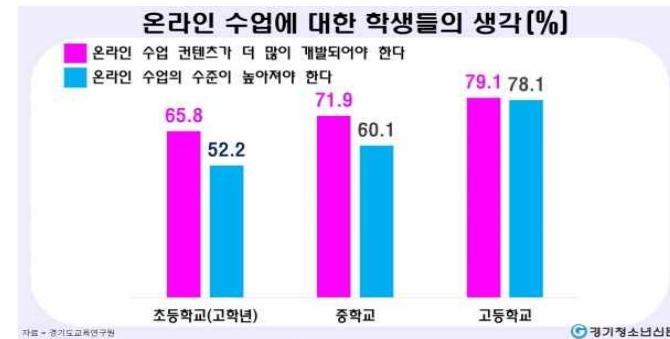
주요성과(BP)

-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맞춘 **활동운영방식 다각화**
 - (기존) 대면중심 활동 → (개선) 대면+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
 - 시 ·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**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 운영 모델제시**
-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참여자 중심 활동 제공(성남초, 위례초 등)
- (체감사례) 단순 영상 시청 중심의 교육보다..도움이 되었어요.(성남초 교사)

- (사회변화)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교육 일상화



- (Needs)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점에 비대면 활동 콘텐츠 제공 필요



활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 활동 필요

- (정부정책)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·비대면 수요의 급속한 확대

* 화상회의 플랫폼 제공 기업 'Zoom'의 '20.1/4분기 매출 전년동기 比 169% 급증

- (정부정책) 스마트워크·재택근무·사이버교육 등 쏠분야의 디지털화 촉진

* 마이크로 팀즈(디지털 플랫폼)

이용자수(백만명):

월)75

현장 목소리 청취

처음에 우리는

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활동 **클립영상 제작 및 업로드 중심(13종)**

한계점 봉착하다

유튜브 채널을 통한 **일방향적 영상 제공에 따른 현장 활용 한계점 노출**

현장의 목소리를 활동에 담다



- ▣ 청소년활동 의견 정취
- `20년 상반기 4회 실시
- 학교 2회, 관련기관 2회
- 대면·서면 병행 운영

단순 온라인 영상제공은
일선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워
차별화된 교구 및 실시간 활동 운영 필요

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동방식 변화



- ▣ 행복배달 활동꾸러미 제작
- ▣ 온라인 스튜디오 2개 개설
- ▣ 시범운영 3차 운영
- 성남초 외 5개교, 124명

KIT화된 활동 재료 전달 및
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활동 운영

나가면 뭐하니?



행복배달 활동 꾸러미



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



평가 및 환류



➤ 활동클립 영상 「나가면 뭐하니?」 자체 제작(13종)

- 간단한 도구 활용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활동(과학, 문화, 역사, 예술 등)

➤ 활동 KIT 제작 및 전달 「행복배달 활동 꾸러미」(교급별 3종)

- 학교·기관별 사전 신청 접수에 따른 활동 KIT 포장 및 실시간 활동 전 배달 서비스 실시

➤ 시·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다. 「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」

- (공간조성)스튜디오 구축 → (사전확인)플랫폼 테스트 → (활동운영)18개 기관, 1,753명

➤ 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활동 참가자 목소리 청취 「평가 및 환류」

- 활동 종료 후, 참여 청소년 및 인솔교사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

➤ 성과

- 급격한 사회 ·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활동운영방식 다각화

- (기존) 대면 중심 활동 → (개선) 대면 +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

- 시·공간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활동운영 모델 제시

-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 제공을 통한 지역청소년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

- 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 지역 및 섬지역 작은학교 18개교, 1,753명

- 지역청소년 활동 지원 비율 전년 동일기간 比 111.6% ↑, ('19)2,000명→('20)4,232명

- (체감사례) 실시간 온라인 활동이 진행되어, **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.** (천안 성남초 6학년 교사 김 00)

➤ 향후 활용계획

-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 운영사례 공유 : 청소년시설·대학교 강의, 지도자 연수 등

- 국립청소년시설(5개) 대상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유회 운영

- 국외 거주 청소년 대상 온라인 실시간 활동 보급

- 재외교포 청소년 '한국역사·문화활동' 및 코이카 협업 '온라인 체험 한류' 활동 전개